

# 201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	㉡

**1.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에서 스승은 노자이다. 노자는 인위적 규범과 제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하였으며, 으뜸 되는 선이 물과 같다고 보고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 파악하기**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며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과 헌신,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고 본다.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3.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정명(正名) 사상을 주장하며 사회 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통치자가 먼저 군주다운 인격을 닦아 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스피노자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제논, 율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필연적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른 필연적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스토아학과와 스피노자는 모두 범신론적 관점에서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세계의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조선 시대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嗜好)'로 파악하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自主之權)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덕(德)은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善)한 일을 행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율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을 위해서는 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만으로는 대립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신과 하나됨을 통해 진정한 행복

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현세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로 보았다.

**7.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파악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관한 지식이 있어도 의지가 부족하여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A에게 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8.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어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작위를 일으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맹자와 순자 모두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고전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비교하기**

(가)는 고전적 자본주의, (나)는 수정 자본주의이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의 원리를 강조한 반면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중시하며 국가의 정책에 의해 사회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고전적 자본주의에 비해 수정 자본주의는 X축은 낮고, Y와 Z축은 높다.

**10.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결과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성장을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이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가)는 불교 사상이다. 불교는 우주 만물이 인과 관계가 있다는 연기설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또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불성이 존재한다고 보며 윤회(輪廻)에 따라 삶과 죽음을 되풀이한다고 본다.

**12. [출제의도] 주자와 왕양명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주자, 율은 왕양명이다. 주자는 성이 곧 이치[性即理]이며 앎의 완성을 위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앎을 지극히 한 후에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왕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며 마음 밖의 이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자와 왕양명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율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개인의 감각과 경험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보고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혼의 수련을 통해 참된 앎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이황, 율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理)의

발(發), 칠정은 기(氣)의 발'에 의해 드러나므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이는 사단은 칠정 속의 선한 측면이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情)이라고 보았으며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공산 사회와 유토피아 이해하기**

(가)는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나)는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공산 사회는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유재산제와 계급이 폐지되어 모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빈곤과 사치, 낭비가 없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이다.

**16. [출제의도] 사르트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실존을 중시하며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고 무한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플라톤과 홉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플라톤, 율은 홉스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자연권을 양도 받은 절대 군주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왈처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왈처의 주장이다. 왈처는 단일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롤스의 가상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가치는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므로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단일한 분배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회적 가치가 각 영역별로 각각에 적합한 정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벤담, 율은 칸트이다. 벤담은 사회적 유용성을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동학과 원불교 파악하기**

(가)는 동학, (나)는 원불교이다. 동학은 보국안민을 내세워 서학에 반대하였으며,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원불교는 서양의 물질 개벽을 이끌어갈 동양의 정신 개벽을 추구하였으며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중시한다. 한편 동학과 원불교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